



## 잊을 수 없는 臨床實話 - 肥厚性 鼻炎 -

朴 泰 植  
(大邱 八達 韓藥房)

우리는 悠久한 民族醫藥의 專門家로서 醫療施惠가 不足하던 時節 無醫療面에서 數十年間을 貧困한 많은 患者들을 돌봐주었다. 至今도 많은 사람들이 貧困한 奧地에서 헌신적으로 奉仕를 하고 있다. 때로는 挫折되기도 하는 가운데 그래도 나름의 使命感으로 보람을 느끼면서 오늘에 이른다. 그간에 있었던 여러가지 臨床逸話중의 한 가지를 적어본다.

「臨床實話」 잊을수 없는 患者.

一九六三年 十月, 가을이 짙어가는 어느날이었다.

키가 훗칠한 미모의 新婚婦人이 17세 가량의 女學生과 함께 藥房으로 들어왔다. 婦人이 말하기를 “저의 시누인데 蓄膿症이 너무나 甚해 學校工夫를 잘 할 수가 없습니다. 昨年에 어렵게 手術을 했는데 또 再發했습니다. 꼭 낫도록 해주세요” 한다. 아주 懇切하다. 자세히 望問 聞切을 해보니 東醫寶鑑 鼻門에 있는 鼻淵 鼻塞 鼻痔 식육 等等을 모두 갖추고 있었다. 洋方醫名으로는 蓄膿症, 肥厚性鼻炎이다. 코안에 버섯모양으로 헛살이 자란다하여 鼻茸症이라 한다. 鼻腔은 鼻痔肉으로 완전히 막혔고 누런 膿이 그침없이 흐르고 있었다. 手術하고 一年만에 이렇게 심하게 재발했으니 이제 手術은 않겠다 한다. 이처럼 閉塞된 鼻痔肉을 녹여 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에서 다시 手術해 볼 것을 勸했다. 그러나 막무가내였다. 한편 念慮가 되면서도 이렇게 臨床의 좋은 機會가 어디 있겠나, 瞬間 意慾이 생겼다. 投藥을 해보기로 했다.

“湯藥과 코 안에 넣는 挿入藥으로 약 두 달 정도의 時間이 걸립니다.” 하니 保護者인 婦人이 “꼭 완치하겠습니까?” 다짐을 받는다.

“치료해주는 이와 환자가 精誠을 다하면 꼭 완치가 됩니다.”

“그럼 의원님 시키는데로 하겠습니다 꼭 완치시켜 주세요” 한다. 이에 防風通聖散 加 三陵 海藻를 지어주고 服用 十日後에 오라고 했다 그동안 코안에 넣는 약도 만들어 놓겠다고 約束했다. 이날부터 東醫寶鑑을 비롯 醫學入門 等其他 코병에 對한 모든 秘方錄을 다 뒤져 공부했다. 東醫寶鑑의 白黃散을 挿入藥으로 選定하고 調劑에 들어갔다. 白礬, 雄黃, 細辛 瓜蒌 等を 조합 作末해서 雄犬膽汁(숫개의 쓸개즙)에 丸을 만들라 했다 개쓸개를 求하러 개 도축

장이 있는 칠성시장에 갔더니 쓸개는 많이 모아 두었는데 전부 숫개 쓸개라 한다. 암개쓸개인지 숫개쓸개인지 믿을 수가 없다하니 매일 새벽에 개를 잡으니 새벽에 와서 확인하고 사가라 한다. 그 후 매일 새벽에 다니면서 正確한 雄犬膽을 求했다.

白黃散丸을 만들고 엷은 명주천에 싸서 올챙이 모양으로 만들어 코 속에 넣고 탈지면으로 막아 두도록 했다. 貼藥은 防風通聖散 加三陵 海藻와 麗澤通氣湯을 번갈아 가면서 投藥했다. 十日마다 다시보니 成果가 좋았다. 鼻茸 헛살이 점점 삭아들어간다. 이정도면 한달 더하면 완치 되리라 樂觀하면서 四十日째 약을 복용시켰다. 이상하다. 앞으로 二十日에 完治가 되겠나? 고개를 가우뚱할 정도로 進展이 미미하다. 마음이 다소 초조해졌다. 患者도 고통스러움이 보통이 아닌 것 같다. “앞으로 二十日에 完治 되겠어요” 간절히 묻는다

“최선을 다 해 봅시다.”하면서 五十日째 藥을 주면서 하루 세번 꼭 약을 복용하고 삼입약도 열심히 넣으라고 했다. 마음 속으로 꼭 나아 주기를 간절히 기원했다. 그러나 五十日을 다 복용했는데도 鼻茸症 헛살이 조금 남아 애를 태운다. 患者는 벌써 지쳐 불만이 대단하다. 고통의 지루함이 한계에 다달은 것 같다. 어찌 생각하니 한번만 더 복용하면 다 삭아 버릴 것 같다. 患者에게 타일렀다. 여태까지 고생한김에 十日만 더 복용해 보자고 간청을 했다. 환자는 마지못해 十日分의 藥을 가져갔다. 마지막 十日分을 다 복용하고 들어오는 患者와 保護者의 顔色은 과히 원망이다. 공격의 기세다 “죽을 고생 다하고 낫지는 않으니 어떻게 하겠어요” 患者인 學生은 지친 고통으로 훌쩍훌쩍 울고만 있다. 정말 곤혹스럽다. 有口無言, 할 말이 없었다.

“세상에 이래도 의원질 할라하오 사람잡는 ... .”

“어떻게 하면 되겠소 나는 정성과 성의를 다했소 그러나 결과가 이렇게 되니 할 말이 없소.....”

保護者는 患者의 손을 잡고 발딱 일어섰다.

“대학병원에 가서 수술과 치료를 하겠어요. 그 비용과 고통의 대가를 다 배상하세요.”하고 표독하게 횡 가버렸다. 정말 비참하기 한이 없다. 泰山이 앞을 꼭 가로막고 있는 것 같다. 東醫寶鑑을 비롯 여러 醫書를 耽讀할 때는 그렇게도 자신이 있던 것이 막상 臨床을 해보니 이렇게도 어렵구나! 失意에 잠기면서 病院費와 苦痛의 대가를 賠償할 것을 覺悟하면서 조용히 기다리기로 했다. 그리고 뼈저린 自己反省을 한다. 무슨 病患이든 百퍼센트 完治될 것이라는 自信滿滿한 말은 하지 말아야 한다. 萬若 期待대로 되지 않으면 그 실망이 더 크기 때문이다.

“꼭 낫겠습니까” 다짐을 받는 사람에게는 “꼭 낫는다는 장담은 할 수 없습니다.”고 말해 患者가 신중한 생각을 하도록 해야겠다. 이런 저런 苦難과 自省으로 日課를 보내고 있었다.

17세의 박영희 환자가 大學病院에 手術받으러 간지도 벌써 한 달이 다 되어간다. 불안한 심정으로 기다리는 어느날 四十代 婦人이 高等學生인 아들을 데리고 왔다

“蓄膿症으로 昨年에 手術을 했는데 今年에 또 재발을 했습니다. 高 3이라 手術도 도저히 못 하겠으니 꼭 좀 낫도록 해주세요” 한다. 박영희 患者에 혼이 난 뒤라 걱정이 앞서고 意慾도 없어졌다. 望診을 해보니 양쪽 鼻腔에 헛살이 누른고름을 꽂물고 있고 목 안을 보니 扁桃腺이 肥大하고 鼻腔에서 넘치는 膿이 咽喉로 누렇게 넘어가고 있었다. 이렇게甚한 症勢에 治療를 시작했다가 또 박영희 끝이 될라 不安한 心情으로 말을 했다. “아드님의 症勢가 너무甚해서 自信이 없습니다. 한 번 더 手術을 받도록 해 보시죠” 하면서 病院에 가기를 勸했다. 그랬더니 患者保護者의 反應이 千萬 뜻밖이었다.

“우리는 박영희 學生 이웃에 사는데 그집 젊은 아주머니 소개로 왔습니다 박영희 학생은 우리 애보다 굉장히 심했다고 합니다 道立病院에서 確認을 했는데 蓄膿症도 完治되고 코 안에 흑도 다 없어졌다고 좋아 하던데 우리집 애가 박영희 학생보다 더 심해서 못고치겠습니까?”

瞬間 아찔했다. 박영희 학생과 그 保護者는 코병은 낫지도 않으면서 고생만 시켰다고 항의를 하지 않았던가. 그런 사람들이 어찌 코병이 완전히 나았다고 다른 환자까지 소개하고 보내주느냐? 이상하다. 대답을 못하고 생각을 정리하면서 물었다

“박영희 학생이 완전히 나았다고 합니까?”

“예 틀림없이 완전히 나았다고 좋아 하던데요”

“그 학생을 위해 얼마나 고생과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이학생도 박영희 학생보다 더 重症입니다 고통과 고생을 장기간 참아 내겠습니까? 또 百퍼센트 완치한다는 보장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래도 해 보겠습니까?”

이렇게 다짐을 받고 약을 지어 주었다. 박영희 학생보다 더 빨리 고통없이 낫도록 기원하면서 약을 지어주었다. 그리고 박영희 학생에게 꼭 한번 와달라는 부탁을 했다

몇일 후 보호자와 박영희, 학생이 환한 웃음으로 찾아왔다. 늑대로 변했던 미모의 保護者도 웃는 모습을 되찾으니 아름다웠다. 그간 사연은 대략 이러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화가 나서 선생님께 행패를 부리고 大學病院에 手術하러 갔습니다 전에 다녔던 카드를 보고 X-ray를 다시 찍었더니 글썽 蓄膿症이 완전히 나았다고 합니다.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코 안에도 한번 봐 주세요, 했더니 반사경을 머리에 쓰고 자세히 보더니 이상하다, 하면서 핀셋으로 코 안을 살짝 건드리며 팔알 같은 덩어리를 건져내고 또 한쪽 코에도 역시 같은 방법으로 뽀얀 덩어리를 하나 빼냈습니다

□수 필

의사가 “이제 다 나왔어요, 코로 숨 한번 쉬어봐” 학생이

“후후후후”

“코가 확 티었지?”

“예 후후후후 이제 완전히 티었습니다.”

“이제 아무이상 없으니 가세요” 이렇게 코병이 완치 됐다는 확인을 하고 집에 돌아오니 정말 기쁘면서도 선생님께서는 정말 미안하고 죄송해서 어찌 할바를 몰랐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 은공은 두고두고 갚겠습니다.” 진정으로 고마운 인사를 하고 갔다 그 후 이사람들이 소개하는 患者는 다 완치가 되었음은 물론이다.

開業初期의 이 임상은 나의 藥業人生의 커다란 教訓이며 자신을 갖게했다 萬若 이患者에게 失敗하고 挫折했더라면 무슨 자신을 갖고 患者를 대했겠는가? 정말 고마운 일이었다. 요즘도 그 미모의 保護者는 곱게 늙어가면서 孫子를 데리고 患者를 데리고 종종 온다. 박영희 학생도 어느덧 長成해 서울로 시집가 잘 살면서 아들 딸 건강을 위해 꼭 나에게 온다 나는 이 아름다운 因緣을 소중히 간직한다. 藥業人生을 다하도록 잊지 못할것이다.